상대가 잘못해서 원망스럽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라

☞ 21면에서 계속

근다더라.' 이런 게 많죠? 그냥 자기가 좋은 날, 노는 날, 하는 일이 없고….

그런데 뭘 하려면 그 생각부터 벌써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나쁘고 좋은 걸 따지면서, 자기가 따지지 않아도 될 거를 따져 가지고 생각을 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벌여 놓고선 '아이고! 그냥 하니까 일이 생기더라.' 이러는 겁니다, 이제. '예방을 안 하고 날짜를 보지 않고 그냥 했더니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거는 자기 생각이 먼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생각을 잘하면 모든 거를 다 얻게 되고, 한생각을 아주 몽땅 쉬게 되면 역대의,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삼독을 그냥 제거시킨다 이겁니다. 내가 간절한 거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용건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길 해도 그 도리를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얘기를 조은번 내놓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러는 겁니다. 벌써 그런 걸 보면, 몇 달 안 됐다고 그러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몇 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죠. 뭐, 목이 아픈 거를 비켜 놓고, 나 피곤한 거 다 비켜 놓고 여러분이 애처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앉으나 서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얘기를 하고, 앉으나 서나 행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태평하기가 그렇게 만사태평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응? 그렇게 시급한, 불덩이 속에서 타면서 돌아가는 거와 같은 살림살일 하면서, 말이 그렇지 다가오는 애고가 한 가지 뿐입니까, 어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런데 대신 밥을 먹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업보를 제거하려면, 본인이 밥을 먹어야만 배가 부르듯이 본인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만이 그게 녹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애탄지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이 중이 먹기 위해섭니까, 살기 위해섭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섭니까? 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잘 쓰고 살기 위해섭니까?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면 깁니다. 짧은 거는 이 무명이 짧다 이 소립니다. 이 고통 속에서 모두 허덕대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보는 놈과 당하는 놈이 마찬가집니다. 나만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나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처음 오신 분이 있건 줄창 오시던 분이 있건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서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면 현실에, 바로 생활 속에 나옵니다. 그 발전하는 마음이 현실 속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마음, 마음!

옛날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신라 때 어떤 젊은 화랑 둘이 의형제를 맺어 가지고 절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지식과 학식을 풍부하게 배워서 아주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들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식과 학식은 충분하지만 정신계의 발전을 못 했으니까, 우리 둘이 결심을 하고 결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정신계의 발전을 시키지 못해서 방향을 모르니 할 수가 없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다니면서 또 들로 다니면서 좋은, 아주 능가할 수 있는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자." 해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 어느 노스님 한 분이 밥을 바가지에다가 얻어서 자시고 계시더랍니다.

> 한 생각을 잘하면 모든 거를 얻게 되고
> 한 생각을 아주 몽땅 쉬게 되면
>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삼독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아이, 스님! 목도 마르실 텐데 물도 없이 이렇게 노인네가 잡수십니까?" 하니까, "젊은 자네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물 떠다 주길 바라고." 허허, 그러더랍니다. 그래 한참 내려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드리니까 "잘 먹었다." 하면서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더랍니다.

"지금은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다섯 가지 계법을 너희한테 내가 일러 줄 테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느니라. 이 마음속에, 이 지금 내면 속에 선을 세워 놓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딱 담고 너 아닌 너한테 맡겨라. 부모한테 효성하는 마음도 또 맡겨라. 네가 그 집 아들이 아니라 네가 그 집 아들이니라." 그렇게 해 놓고 "셋째는 친구들을 만나되 도의, 의리, 진정한 마음으로 사귀어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귈 수가 없다면 한데 뭉칠 수가 없다. 그리고 넷째는 화랑이니까 모으는 반면에 모든 일들을 하되 딴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사람이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 너그럽게, 모른다 할지라도 네 탓으로 생각하고, 모를 때네 모습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끌어 가거라. 다섯째는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짐승들을 죽이되, 말이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뭐, 이런 거는, 인간들 가깝게 있는 거는 죽이지 마라. 그리고 죽일 때에,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는 너희가 먹을 만치만 죽여라. 그리고 살생을 하되 봄 여름은 지나서 살생을 해도 해라."

그렇게 다섯 가지를 줬답니다. 그랬는데 그 두 화랑은 나중에 다시 여쭤 봤더랍니다. "네 가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다섯째는 어떻게 살생을 하되 먹을 만치만 하고, 살생을 하되 여름과 봄은 제해 놓고 하라 합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과 봄은 새끼들을 낳아서 모두 기르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 청심하고 살생을 하되 새끼들 없을 때, 새끼들 없는 걸 먹을 만치만…."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계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의 그릇을 봐서 계를 주는 거지, 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라. 시대에 따라 맞춰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줄 알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두 화랑은 거기에서 조금도 스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아주 여러모로 다양하게 기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직하란다고 끼었다가 빼서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넓고 지혜롭게, 이익하게만 거짓말하는 거는 이익한 지혜지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네 가정에서 모든 지혜와 그 진실된 믿음, 그리고 요량, 그리고 남을 증오 안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남도, 모르는 사람도 내 모습으로 알고, 악한 사람도 내가 전자에 살 때 악했던 그 모습으로 본다면 모두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아마 다 화목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국가 질서도 그렇고 사회 질서도 그렇고 아마 세계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평등하게. 그렇게만 하신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남한테 가서 폭력을 하려야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을 하려야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도 당하지 않을 거고 폭력을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일체 천차만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있다가 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여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를 이끌어 가는 나 자체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죽을 데로 끌고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을 데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진짜로 믿어야 마음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이룩할 수 있고, 세세생생에 이룩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밝아서 자식들의 뿌리에도 밝게 불을 켜 줄 수가 있고, 부모 조상들에게도 불을 켤 수 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천도가 돼서 나올 때도 조금도 어김없이 선행과 그 모든 보살행을 그대로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들도 둘 아니게 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 출현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스님한테다가 곧장 대놓고 이것저것 얘기 안 해서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이 스님은…. 이 삼독을 면하면 말입니다, 삼세의 부처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모아서 됩니다. 그러니 한마음인데 어찌 여러분의 마음이 개별적인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마음을 전달하면서, 같이 찰나찰나 전달을 하며 돌아가는데 어찌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묘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라도 아주 생생히 진짜로 믿고 얘기할 데는 거깁니다, 거기! 닿다가도 얘기할 수 있고.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응? 빽이 여기 있고, 항상 부처님 마음에다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선 주인공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일체제불의 그 한마음이 동시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동시에 나투어 줘.

동시에 나투어 줄 때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하나의 보살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아픈 사람은 약사가 돼서 한마음이 돼 주고 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 독성이나 산신이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또 죽는데 좋은 데로 못 가면 거기다가 고하고, 그냥 '너밖엔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삼독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놓으면 지장의 마음이 거기 한마음이 돼 주고 이러니까 뭐, 궁색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궁색할 게 하나도 없죠, 모두가.

그렇게 해도 죽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법에서 10년 징역을 받았든 20년 징역을 받았든 일단 받은 거는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럭하다가도 진실하게 잘, 어디에도 모범적이고 어디에도 잘할 수 있다면 그 징역 20년 받았던 게 15년으로도 될 수 있고 10년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전자의 묵은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거야. 유전성을 다 없애고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다 그냥 몽땅, 삼독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마음으로다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히 믿고 진실히, '저 스님,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허허, '내가 스님을 꼭 만나서 얘길 안 해도 스님의 마음,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내 한마음으로 응해 주시니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신임하고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님한테 말을 해야 갈 수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길 해야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기르려면 그렇게 실험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다. 육신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길지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하하,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이, 이 하늘이 깨지고 뭐, 지붕이 갈라지고 온통 자식이 그냥 죽고 남편이 급사를 하고 그런다 해도 능히 눈깜짝 안 한다면, 그거는 다 헛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또. 허허.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항상 밝아서 걸림이 없이 물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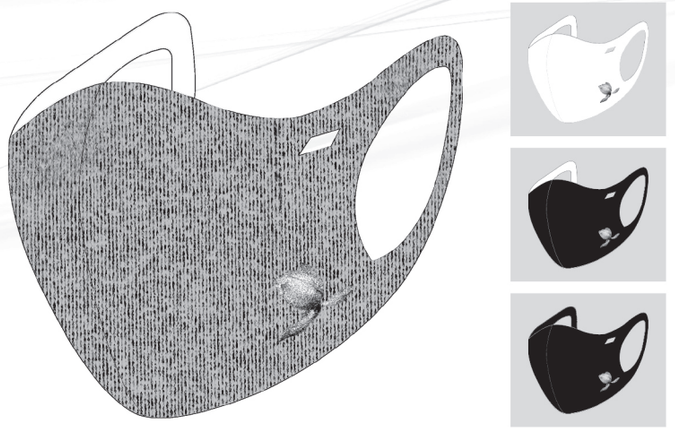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4월 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